

작가노트

이번 전시에 선보이는 작품들은 캔버스에 오일이라는 전통적인 서양화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소재를 받아들여 만들어진 작품들이다. 새로운 시각에서 작품을 구상하고 한국의 문화 속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던 옷칠과 난각 (계란껍질을 옷칠의 판 위에 모자이크함)을 작품에 도입한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옷칠은 내부로부터 온화하고 함축적인 광택이 우러나오고,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을 연상케하며, 세상의 모든 사유를 포용할 듯, 말로 표현하기 힘든 신비로움을 지닌 천연의 도료이다. 접착력이 강하며 습기와 열에 강하고 부식과 벌레 먹는 것을 막아주어 수천년 된 유물이 옷이라는 옷을 입고 원형 그대로 발굴되는 경우가 많다.

흔히 옷칠이라면 현란한 기술로 만든 가구나 기물을 떠올릴지 모르나, 내가 이번에 전시하는 작품의 대부분은 칠흑의 태판 위에 이루어진 평면작품이다. 우리 생활 주변에 타성처럼 오랜 세월 머물러 있어, 전혀 새롭게 인식되지 않던 옷칠로 작업한다는 것은 너무 막연하고 막막하였다. 특히 내가 구상하고 있던 작품에 대해서는 두드릴 문이 보이지 않았다. 먼저 그 물성을 이해하고, 기법을 익혀, 모든 것을 새로이 체득했지만, 일련의 과정은 시련과 도전의 연속이었다. 옷에 올라 며칠씩 작업을 중단하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또한 옷칠은 유화처럼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영감을 캔버스에 담고 시간을 두고 다듬어 가는 작업은 불가능하다. 작품에 대한 철저한 구상이 선행되어야 하고, 일단 시작하면 수많은 과정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시켜야 하며 반복적인 과정이 엄청난 인내를 요구한다. 재료의 특성상 표현의 한계에 부딪칠 때도 많았지만,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작품을 구상하게 되었다.

매체가 무엇이든, 작품은 작가가 보아온 세상, 살아온 궤적을 담은 의식의 총화라고 생각한다. 또 인산은 상황적인 존재이기에 삶의 여정에서 타인을 통해, 그리고 때로는 예기치 못한 상황의 변화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만, 작품은 결국 작가의 누적된 의식이 발현되는 즉 오리지널리티(originality)가 형체를 갖추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끊임없는 열정의 소유자다. 그리고 전혀 알지 못하던 세계 속에 있는 풋대를 향해 달려가는 모험심과 지독한 끈기, 포기할 줄 모르는 인내와 창의성이 나로 하여금 작품활동을 멈추지 않게 한다.

누군가 나의 작품 앞에서 어떤 지성적인 교감을 갖게 된다면 그것은 나의 집중된 에너지의 원천을 가슴으로 느낀 것이라고 생각한다. 반복적인 작업의 지루함 속에 긍정적인 에너지와

기도의 마음이 투입된다면 작업에서의 집중력과 직관에 좋은 재료가 되는 것이다.
지각(知覺)하는 모든 것이 끊어질 때 진정한 영혼의 자유로운 시간이 된다.

공숙자